

경축 87회 성탄절

메시아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우측 일부는 이슬성신

현재 지구촌 인구는 약 75억 5천만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75억이 넘는 인류 대부분이 진짜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메시아 구세주는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인류를 건져서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위대한 분이다. 누구나 다 알다

시피 유사 이래 그 누구도 인생들의 영원한 숙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했다.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생명의 기원이 창조인지 진화인지 모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며, 왜 죽는지 모른다.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과 노화는 왜 일어나며, 질병과 노화로 고통 받다가 결국 죽는 이유가 무

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메시아 구세주이다. 메시아 구세주는 스스로를 하나님, 주님, 구세주, 생미룩불, 정도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과 언행 등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여야 했다. 그래야 객관성이 부

여된다. 또한 성경과 불경 그리고 격암 유록 등의 예언서에 메시아 구세주, 미룩불, 정도령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야 한다. 조희성님을 격암유록의 정도령이라고 인정한 분은 초창기에 왔던 고서연구가 이석만 선생이고, 불경 상의 미룩불이라고 인정한 분은 오영규 스

3면에 계속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13>
“21일간만 자유율법을 지켜라”

여러분들, 21일간만 자유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약 5년 동안 밀실에 있었지만 사실이 사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1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일 동안 온전히 자유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이 사람도 어떤 때는 3일 만에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20일째 되는 날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도전하여 21일 동안 온전히 자유율법을 지키니 '이겼다' 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어나서 또 달려야 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지 못하면 기어사라도 가야 합니다.*



식자우환(識字憂患)

사명대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서산 대사가 펴낸 선가귀감(禪家龜鑑)이라는 책이 있다. 참선(參禪) 수행을 하는 구도자들이 즐겨 읽는 책이다. 그 중 '최종장(最終章)'에 "神光(신광)이 불매(불매)하여 萬古微塵(만고회유)라. 入此門來(입차문래)하여는 莫存知解(막존지해)이다."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빛 어둠지 않아 만고에 환하구나. 이 문안에 들어오려면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라는 뜻이다.

하였다면 자신의 지식을 다 지워야 한다. 백지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사망의 지식이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불과할 것이다. 아는 체하지 말고 잠자코 배워라. "이 세상에 종교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다."라고 완성자 조희성님은 말씀하신다. 이 세상 종교와 학문은 모두 사망 아래의 학문과 종교이며, 마귀 영인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문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식구이건 오래된 식구이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말을 한다면 그는 도의 길에 전혀 입문하지 못한 사람이다. 영생의 길은 자신을 비우는 길이다. 알음알이를 비롯한 모든 자신과 관련된 것을 없애야 영생할 수 있다. 백지로 돌아가라.*



S자형 기와의 기원과 와당수막새의 내력



▲기원전 1200년경 삼손얼굴과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가장 오래된 S자형 기와는 기원전 1600년경에 만들어졌다

성경 인물로서 유명한 아브라함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에서 산 적이 있다. 그의 손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여 이겼다고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후 이스라엘(본명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대신으로서 성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족은 전부 이집트로 이사하여 고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게 되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고센 땅을 동서남북으로 각자의 지역을 나누어 부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특히 이집트 고센의 다니스(Tanis: 소안)에서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면서 번성하였다. 이집트의 최북단에서 단지파가 강력한 부족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시나이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4군 가운데 일명 북군으로써 북쪽을 담당할 것이다. 단지파는 고센 땅의 북부 이집트 다니스(Tanis) 즉 소안(Zoan)을 성읍으로 삼고 지중해 연안국과 교역을 하였는데, 이집트에 거주한 지 약 200년이 지나서 히소스 왕조

가 들어선 기원전 1674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에 양들과 기와를 실어 지중해 맞은편에 있는 그리스 연안으로 왕래하며 무역에 힘썼다. 단지파에 의해서 최초로 창안된 이집트에서 생산한 S자형 기와는 교역 품목이 아니었다. 양들을 배에다 실어다가 그리스 연안(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하선한 후, 양들을 우리에 가두어둘 때에 양들이 담장을 뛰어넘어 가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S자형의 미끄럼판을 고안하여 담장 위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지중해풍의 스페니쉬 S자 기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연안에서 발굴된 담장 위에 얹어놓은 고대 S자형 기와는 미케네 문명시대로 연대기를 확정할 수 있었으나 그 기와의 제작자는 그리스 본토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어떤 외국의 상인이라고 고고학자들의 한결 같은 결론이다. 그리고 고대 S자형 기와 담장 주변에 이집트에서 유입된 주

생활을 하는 몽고인이 거주하는 집이 접었다가 폼다 할 수 있는 이등에 용이한 게르(ger)이듯이, 이집트 고센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단지파 백성들도 게르와 비슷한 천막에서 거주하면서 양떼의 꼴을 찾아서 이동하였다. 그래서 단지파 백성들은 벽돌로 집을 지을 일이 없기에 지붕에 S자형 기와를 얹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늘날 이집트 고센 지역에서 S자형 기와의 고대 유물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S자형 기와의 최초 창안자 단(檀)자손은 헤라클레스 신화를 공유했다

이집트의 고센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의 12부족은 이스라엘(본명 야곱)의 형이 세운 가나안의 예돔왕국과 합세하여, 기원전 1700년경에 이집트 파라오 왕조를 무너뜨리고 히소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그 당시 히소스인들은 야훼의 이름으로 황야와 바다의 신을

숭배하였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지중해 건너편으로 전해져 그리스 신화의 해신(海神) 포세이돈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기원전 1200년경에 '도리안들의 침입'이라는 유명한 사건으로 미케네를 멸망시키고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점령한 것을 두고, 그리스의 전설에 의하면 '헤라클레스 일족의 귀환'이라고 한다.

도리안 사람을 도리스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명칭의 유래는 아마도 자신의 종족이 이국 멀리 동쪽으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어떤 이유로 전부 따라가지 못하고 일부만 떨어져 나와 도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서 '도리안'이라고 불리게 된 것으로 추정해본다.

이스라엘 단지파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되는 가나안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이던 중 단지파의 장수 삼손이 기원전 1248년에 죽게 되자, 그해에 단지파 민족은 가나안 소라를 떠나 동북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단지파 민족의 이동에서 피지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잔류한 일족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삼손을 배출한 종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무역의 전초기지였던 그리스 연안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후 삼손 장수의 무용담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의 목을 잘라 죽인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로 대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고로 도리안 사람이 곧 단지파 계통의 사람일 것이라고 유추해본다.

3면에 계속 ▶



▲기원전 1600년경 S자형 담장 기와(그리스 연안 출토)

성모님의 태몽 聖母

그 선녀들은 제 주위를 에워싼 후 빙빙돌더니 일제히 저를 향해 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떤 연고로 그러시느냐'고 하니 선녀들 중 한 사람이 한테로 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을 따라 갔는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오색찬란한 빛과 구름이 온 산을 뒤덮더니 흰옷을 입은 선녀들 10여 명이 하늘에서 날아와 저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성모님께서 조희성님을 임태하신 후 꿈을 꾸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양산(인전 부평 소재)에서 저를 향해 손짓을 하며 자기 한테로 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을 따라 갔는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오색찬란한 빛과 구름이 온 산을 뒤덮더니 흰옷을 입은 선녀들 10여 명이 하늘에서 날아와 저에게로 내려왔습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